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여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6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7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버스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 백화점-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 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
(옛 수도극장, 스키라극장)-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홍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라부터-회현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남산 힐하우스호텔 옥상-회현동 은행나무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학로-한무숙문학관

13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보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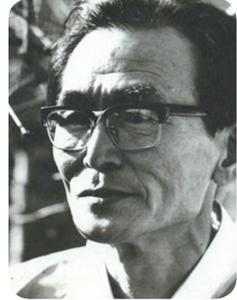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코스 순서

- ① 경리단길
- ② 보성여고
- ③ 해방촌성당
- ④ 해방예배당
- ⑤ 해방촌오거리
- ⑥ 신흥시장
- ⑦ 108계단
- ⑧ 용산고등학교



▶ 일정표

회차	일정	주제	코스	해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미타-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흰당나귀	최소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점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동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둔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비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등학교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락부 터-회현제2 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남산 힐하우스호텔 옥상-회현동 은행나무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학로-한무숙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 보도-청진동-관훈동-윤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사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연보 및 작가 소개



연보

▶ 1920년

12월 30일 평안남도 안주군 신안주면 운학리 19번지에서 이계하(李燾夏)와 모 유심건(劉心健) 사이에 5남 4녀 중 차남으로 출생

▶ 1933년

신안주 청강(淸江)보통학교 졸업. 진남포공립상공학교 입학

▶ 1938년

진남포공립상공학교 졸업. 이후 평양에서 은행원을 하기도 하고, 만주에 가서 회사 사무직 계통에 근무하기도 함

▶ 1943년

신안주 금융조합에 근무. 10월 평남 중화군 풍덕면 풍덕리 출신의 3세 연하인 홍순보(洪順輔)와 결혼. 11월 일제의 징용을 피해 처남이 간부로 있던 평북 봉천(鳳泉)탄광의 경리계 근무.

▶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귀향.

▶ 1946년

단신 월남. 군정청 통위부 근무. 금강전구회사 회계과 근무. 동국대 전문부 입학.

▶ 1947년

부인 월남 합류.

▶ 1948년

연희대학교 교무과 근무. 연희대 사택에 거주.

▶ 1949년

동국대 전문부 졸업.

▶ 1950년

4월 장남 근종(權鍾) 출생. 6·25 발발, 서울서 숨어 지냄.

▶ 1951년

1·4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

▶ 1951년

부산 부민동 교회에서 살다가 가을 백락준(白樂濬)의 소개로 거제도 장승포 거제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이후 3년간 근무. 3월 차녀 정순(正順) 출생.

▶ 1952년

동국대 국문과 졸업

▶ 1954년

서울로 돌아와 성북구 안암동과 경기 안양의 셋방을 전전.

▶ 1955년

대광고등학교 근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9번지에 집을 마련. [현대문학]지에 단편 <암표>(4월호) <일요일>(12월호)로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문단 데뷔.

▶ 1958년

‘갈매기’로 제4회 현대문학상 신인상

▶ 1959년

대광고등학교 사임, 한국외국어대학 교무주임. ‘오발탄’ 발표

▶ 1960년

한국외국어대학 사임.

▶ 1961년

한국외국어대학, 서라벌예술대학 출강. ‘오발탄’으로 제5회 동인문학상

▶ 1962년

한국외국어대학 전임강사. 제1회 오월 문예상

▶ 1970년

〈청대문집 개〉 월탄 문학상

▶ 1973년

한국외국어대학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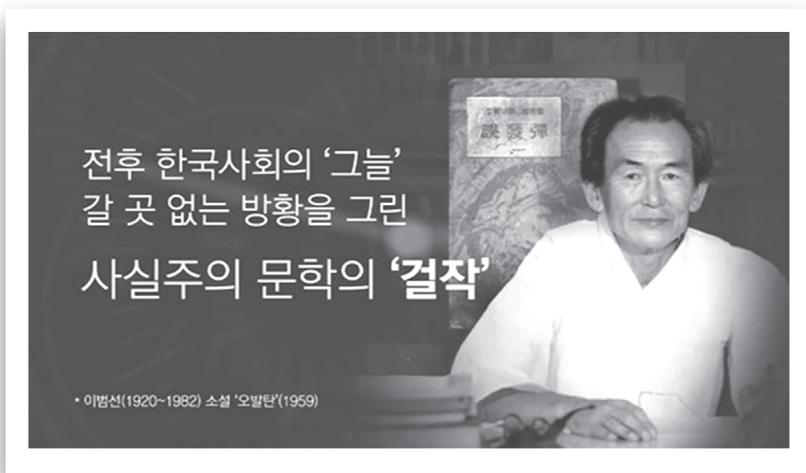
▶ 1981년

예술원 회원. 대한민국예술상

▶ 1982년

1월 21일 둘째딸이 거주하는 캐나다 여행, 2월 12일 귀국, 2월 28일 뇌일혈로 졸도, 경희 의료원에 입원, 3월 13일 오전 3시 45분 사망. 경기도 용인공원 묘원에 안장.

작가 소개



학춘 이범선(李範宣, 1920.12.30.~1982.3.13)은 학처럼 고고하고 우아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지닌 소설가이다. 평남 신안주(新安州) 생. 호 학춘(鶴村). 유복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진남포 공립 상공학교를 졸업, 평양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일제말기에 탄광으로 징용되어 가기도 했으며, 광복 후 월남하여 1952년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였다.

1955년 단편 소설 〈암표〉, 〈일요일〉로 데뷔하였는데, 늦게 등단하여 어른대접 혹은 원로 대접 받기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숙명여고, 대광고, 휘문고 교사를 거쳐 1960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전임강사, 1977년 교수가 되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수 재직 중 뇌일혈로 사망하여 경기도 용인 공원묘지에 묻혔다. 한국문인협회 이사, 소설가협회 부대표위원,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예술원 정회원(1981)으로 활동하였다. 현대문학 신인상(1960), 동인문학상(1961), 5월문예상(1962), 월탄문학상(1970), 대한민국예술상(1981) 등을 수상하였다.

1958년 처녀창작집 〈학마를 사람들〉로 제1회 현대문학상 신인문학상을, 1961년 〈오발탄〉으로 제5회 동인문학상과 1962년 제1회 오월문예상을, 또 〈청대문집 개〉(1970)로 제5회

월탄문학상(月灘文學賞)을 수상하였다.

1978~79년에 현대문학에 연재된 <흰까마귀의 수기>는 자전적 소설로 인생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담담하고 완숙한 필치가 담긴 후기 대표작으로 꼽힌다. 작가이면서 동시에 학자적 풍모를 지녀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 섰던 그의 인간적 면모는 깔끔하고 엄격한 성품으로 강한 선비적 기질을 지녀 많은 동료·후배들에게서 신망을 받았다.

이범선은 검은색 두루마기에 까만 단색 목도리의 한복을 즐겨 입고 다녔다. 또한 시인 황금찬, 드라마 작가 주태익 등과 함께 오후시간에는 주로 종로 관철동에 있는 <유전다방>에서 시간을 보내서 이들을 삼인천하(三人天下)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소설가 오영수, 박연희, 곽학승, 서기원, 시인 김시철, 황명, 성춘복, 수필가 최신해 등과 함께 문인낙시회를 조직하고 낙시를 즐겼다고 한다.

초기소설



▶ 작품경향

생활 체험이 반영된 것으로서 어두운 사회의 단면과 무기력한 인간상(人間像), 담담한 필치의 서경적 묘사의 수법으로 토착 서민의 생태를 표현, 길흥의 미신 또는 무욕(無慾)의 인간상을 다루었다.

1955.4. <암표(暗標)>(현대문학4)	1957.11. <수심가(愁心歌)>(현대문학35)
1955.12. <일요일(日曜日)>(현대문학12)	1958.1. <토정비결(土亭秘訣)>(현대문학37)
1956.5. <이웃>(현대문학17)	1958.2. <사망보류(死亡保留)>(사상계55)
1957.1. <학마을 사람들>(현대문학25)	1958.7. <백이숙제(伯夷叔齊)>(현대문학43)
1957.9. <미꾸라지>(현대문학33)	

중기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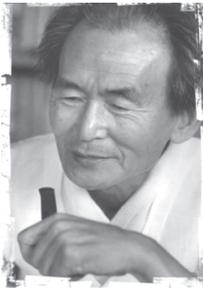
▶ 작품경향

사회고발의식이 짙은 리얼리즘의 문학으로 전환하여 약자의 생존과 침울한 사회상, 종교의 위선, 남녀의 생태 등을 부각시키는 객관적 묘사를 보여 주었다.

1958.7.〈피해자〉(세계)	1965.8.〈명인(名人)〉(신동아12)
1958.8.〈몸 전체로〉(사상계61)	1965.〈하오의 무지개〉(대한일보)
1958.10.〈삼일장(三一章)〉(한국평론6)	1966.2.〈혼례기(婚禮記)〉(현대문학134)
1958.12.〈갈매기〉(현대문학48)	1966.3.〈황혼의 기도(祈禱)〉(한양49)
1959.3.〈소년(少年)〉(신문예10)	1966.3.〈가을비〉(한국문학)
1959.6.〈황혼의 기도〉(자유공론)	1966.4.〈상흔(傷痕)의 내력(來歷)〉(신동아20)
1959.8.〈벌레〉(신태양)	1966.6.〈깨어지지 않는 꽃병〉(한국문학)
1959.10.〈냉혈동물〉(문예1)	1966.8.〈그의 유작(遺作)〉(문학4)
1959.10.〈환원(還元)〉(사상계75)	1966.9. ~ 1967.6.〈춤추는 선인장〉(조선일보)
1959.10.〈오발탄(誤發彈)〉(현대문학58)	1966.10.〈임종(臨終)의 소리〉(현대문학142)
1960.4.〈태양을 부른다〉(새벽32)	1967.5.〈단풍(丹楓)〉(현대문학149)
1960.5.〈아내〉(현대문학65)	1967.7.〈신분증(身分證)〉(신동아35)
1960.10.〈오발탄〉(사상계87)	1967.〈구름을 보는 여인〉(전남일보 연재)
1960.10 ~ 1961.9. 전12회 연재〈동트는 하늘 밑에서〉(현대문학70 ~ 81)	1968.2.〈쇠를 먹고 사는 사람들〉(현대문학158)
1960.11〈박사(博士)님〉(사상계 88)	1968.5.〈문화주택〉(신동아45)
1961.〈삭풍(朔風)〉(부산일보 연재)	1968.〈산 너머 저 산 너머〉(대구매일신문)
1962.2.〈월광곡(月光曲)〉(사상계104)	1968.11〈천당 간 사나이〉(현대문학167)
1962.11.〈돌무늬〉(사상계114)	1969.3.〈태자(太子) 가치〉(아세아)
1963.1.〈너는 적격자(適格者)다〉(신세계)	1969.4.〈죽마지우(竹馬之友)〉(월간문학6)
1963.11.〈분수령(分水嶺)〉(현대문학107)	1969.〈선녀제비〉(여성동아)
1964.7.〈너는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른다〉	1969.〈거울〉(부산일보)
	1970.9.〈청대문집 개〉(현대문학189)

(문학춘추4)	1970.10~1975.12.〈당원(黨員)의 미소〉 (월간문학24~82)
1964.7.〈네온싸인〉(현대문학115)	1970.〈사령장〉(경제신문)
1964.8.〈코스모스〉(여원)	1971.2.〈지신(地神)〉(신동아78)
1964.9.〈분수 있는 로터리〉(여원)	1971.5.〈청대문집 개〉(동서문학7)
1964.10.〈코스모스 부인(夫人)〉(문학춘추7)	1971.〈전설을 품은 새〉(신여원)
1964.11.〈살모사〉(사상계140)	1972.6.〈정교수(鄭教授)의 휴강〉 (현대문학210)
1964.11.〈가물〉(청맥3)	1972.10.〈표구(表具)된 휴지〉(문학사상1)
1964.〈밤에 핀 해바라기〉(국제신보)	
1965.1.〈화환(花環)〉(현대문학121)	

후기소설



▶ 작품경향

인간의 궁극적 모순을 추구하려는 존재론의 회의적 허무가 깃들인 잔잔한 휴머니티가 짙게 깔린 내용을 담고 있다.

1973.2.〈쓸쓸한 이야기〉(신동아102)	1978.10.〈판도라의 후예(後裔)〉(문학사상73)
1973.3.〈하늘엔 흰 구름이〉(현대문학219)	1979.12.〈유모차(乳母車)〉(현대문학300)
1973.10.〈삼계일심(三界一心)〉(문학사상13)	1979.12.〈면민회(面民會)〉(문예중앙)
1975.2.〈초배(初褙)〉(한국문학16)	1980.1.〈두메의 어병이〉(문학사상86)
1975.10.〈배나무 주인(主人)〉(문학사상37)	1980.〈당원(黨員)의 미소〉(명성출판사)
1976.〈춤추는 선인장〉(문리사)	1980.7.〈고국(故國)〉(소설문학)
1977.9.〈고장 난 문〉(문학사상60)	1981.5.〈별과 코스모스〉(문학사상103)
1978.〈검은 해협〉(전2권, 태창문화사)	1981.9.〈미친 녀석〉(한국문학95)
1978.1~1979.6. 전18회 연재〈흰 까마귀의 수기(手記)〉(현대문학277~294)	1983.〈밤에 핀 해바라기〉(장편, 삼성당)

수필 및 평론

- | | |
|--|--|
| 1959.1.〈섬 일기〉(현대문학49) | 1979.7.〈소설 추천 후기〉(현대문학295) |
| 1959.6.〈바둑이〉(현대문학54) | 1979.8.〈소설가 오영수(吳永壽) 추도: 한 점 흰 구름처럼〉(현대문학296) |
| 1960.5.〈다정다감한 황순원(黃順元) 선생〉
(현대문학65) | 1981.11.〈60년의 색깔〉(현대문학323) |
| 1962.5.24.〈살아갈 의욕뿐〉(동아일보) | 1982.1.〈조연현(趙演鉉) 추도특집: 석재(石齋)의
인간과 문학-고별사〉(현대문학325) 1982.5.
〈캐나다 견문기(유고)〉(현대문학329) |
| 1971.8.〈숙제로 이뤄진 작품들〉(현대문학200) | |
| 1977.6.〈추도: 안수길(安壽吉) 선생님〉(현대문학270) | |

소설집, 수상집

- | | |
|---------------------------|-----------------------------|
| 1958.〈학마을 사람들〉(오리문화사) | 1978.〈검은 해협〉(태창문화사) |
| 1959.〈오발탄(誤發彈)〉(신흥출판사) | 1979.〈흰 까마귀의 수기(手記)〉(여원문화사) |
| 1963.〈피해자(被害者)〉(일지사) | 1980.〈당원(黨員)의 미소〉(명성출판사) |
| 1969.〈동트는 하늘 밑에서〉(국민문고사) | 1980.〈판도라의 후예〉(신여원) |
| 1975.〈전쟁과 배나무〉(관동출판사)-수상집 | 1980.〈밤에 핀 해바라기〉(신여원) |
| 1976.〈표구(表具)된 휴지〉(관동출판사) | 1982.〈두메의 어버이〉(홍성사) |

▶ 작품세계

초기와 후기의 변화

“나는 나의 생활과 밀착된 일이 아니면 아무런 애착도 흥분도 거기서 느끼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범선의 말처럼 초기의 그의 작품은 온갖 직업을 전전 배회한 전반생의 생활 체험이 반영되어 어두운 사회의 단면과 무기력한 인간들이 흔히 등장된다. 그는 생활 주변의 서민적인 삶 속에서 소재를 찾아내는 소박한 작가로서, 전후의 비극과 암담한 시련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사회로부터 거세당하거나 낙오되고 무기력한 존재이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초기 작품의 작중 인물들은 주로 깨끗하고 고고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점차 사회 비판적인 입장으로 변해갔다.

이범선은 1955년에 <암표>와 <일요일>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25년 동안 리얼리즘의 길을 일관되게 걸은 작가이다. 전후의 척박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작가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창섭이나 장용학을 비롯한 당시의 작가들과는 달리 허무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일상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적 형상화에 꾸준히 매진했다. 이범선은 실존주의의 세례 속에서 리얼리즘의 전통이 붕괴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리얼리즘의 명맥을 보존함으로써 이후 리얼리즘이 재생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준 작가이다.

이범선이 리얼리즘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던 내적 요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거론할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집요한 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서민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편적 휴머니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범선의 보편적 휴머니즘은 때로는 서민의 소외된 삶에 대한 깊은 동정으로, 때로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분노와 냉소로, 어떤 경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편적 휴머니즘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범선은 전후문학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잃어버렸던 서사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작가이다. 특히 결별의 모티프를 동시대의 작가들 중 가장 날카롭고도 전면적으로 표현한 점이야말로 이범선 문학의 가장 중요한 성취라 하겠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양심과 휴머니티를 지니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임에도 멸시와 냉대, 저주를 받는 것은 모두 사회의 책임이다. 그는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착한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을 서정적으로 호소하여 독자로 하여금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깨닫게 한다. 인생이나 현실의 단순한 관찰자의 입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여, 참된 인간성을 추구하고 보다 소망스러운 내일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로 올수록 사회 고발 의식이 짙은 리얼리즘의 문학으로 전환한 작품을 쓰거나, 회의적(懷疑的) 태도가 깃든 휴머니티가 바닥에 깔린 작품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깨끗하고 고고(孤高)하며 소극적 성격을 묘사하다가 점차 사회와 현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었다.

등장인물들

이범선의 작품은 왜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며, 고향은 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여기서 역사의 한 단면과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의 소설에서는 이것이 과감하게 생략되고, 38선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생활, 이전의 이북 생활과 이후의 이남 생활만이 묘사된다. 이러한 사정은 그의 〈피해자(被害者)〉 〈수심가(愁心歌)〉 〈학마을 사람들〉 〈오발탄〉 〈살모사〉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그 외의 단편들에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다. 그는 말하자면, 생활의 '뿌리'가 뽑혀지는 그때부터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뽑혀진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다. 같은 월남인(越南人)들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의 소설이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없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그가 창조해 내는 인물들은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도전적이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고 한가닥 양심 때문에 현실의 부조리와 비리 속에서 파멸하는 종장에 다다른다. 그는 드러내 보여줄 뿐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의 역할은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작품을 우리에게 던져 줌으로써 우리에게 해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서 과거에 대한 향수는 더 철저해진다. <피해자(被害者)>에서의 ‘명숙’에 대한 ‘요한’의 사랑, <학마을 사람들>에서의 ‘봉네가 흰 보자기로 뿌리를 싼 조그마한 애송나무’, <사망보류(死亡保留)>에서의 ‘나의 살던 고향은/꽃피는 산골/복숭아꽃 살구꽃/아기 진달래’의 노래 때문에 살아난 ‘고향 앞산의 진달래’, <자살(自殺)당한 개>에서의 ‘정란’에 대한 ‘영철’의 사랑, 그리고 좀 격한 경우 중의 하나이겠지만, <몸 전체(全體)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백 사장, 그건 꼭 ‘우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저 수없이 많은 모래알, 그것이 어찌다 한곳에 모였을 뿐, 아무런 유기적 관계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참 좋아하고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우리! 그런데 피난 중에 저는 그만 그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독백은 과거에 대한 향수의 변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향수는 현실의 어두운 부분 때문에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화해적(和解的)인 결말로 주인공들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상받을 길 없는 환상이며, 꿈이다.

이범선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태도를 결연하게 선택하는 서구적인 개인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체념해 버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려는 수동적이고 생물적인 비개성적 개인이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학교 선생이면서도 수명적인 환경(그것은 <피해자>의 ‘요한’에게는 기독교이며, <사망보류>의 ‘철’에게는 病이며, <갈매기>의 ‘훈’에게는 섬이다.)을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이것은 그의 소설이 왜 사회고발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적(詩的)인 톤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다.

그 주인공들은 상황을 개조하려는 노력보다는 상황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자신을 지탱해 줄 어떤 도덕률에 항상 매달려 있다. 그 도덕률은 그들이 항상 소시민의 영역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이겠지만, 지극히 상투적이고 수동적이다.

이범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개성적인 결단이 배제된 상투적이고 도식적인 윤리관, 혹은 종교관의 노예가 된 소시민의 각성 과정이다. 이 과정을 역(逆)의 방향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그의 소시민적인 주인공들의 패배와 좌절이 상투적인 ‘양심의 가시’를, 그를 둘러싼 현실과 밀접하게 조응시킴으로써 자신이 밖으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뇌수(腦髓) 속에 한정시켜 버림으로써 스스로 굴욕적인 체념을 수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범선 자신의 예술적인 승리는 소시민이 체념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체념한 자들의 너무나도 무기력한 생태를 서술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어서 다시 한 번 작가의 개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

50년대는 우리 소설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소설의 전개에 있어서, 혼란과 전쟁 이후 폐허와 공허의 광장에서 서서 새로운 소설 문학의 문을 연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사회사적(社會史的) 측면에서도 자유롭게 서구 문명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고, 동양의 지방색적(地方色的) 요인과 한국의 인습적 문화 영향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이국(異國)의 병사들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문화적 성향들로 인해서 충돌하고 변증되고 갈등을 일으키던 시대였다는 점도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일찍이 겪은 바 없었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해서 사회와 인간과 존재와 생명이라는 현대 정신문명의 핵체(核體)들을 직접적으로 생사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어렵고 허무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다. 특이한 이런 상황을 담아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소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50년대라는 시대적 특색을 형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55년 전후의 소설문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① 전쟁 소설·정치 소설 등이 나타난 것이 새로운 국면이다. 평상적(平常的)이고, 일상적인 국면이 아니고 괴기(怪奇)하고 극단적인 시추에이션을 만들어,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고, 심리적인 인간성을 표상하고 있다.
- ② 광패 소설이 등장하고 있다. 이문희(李文熙)의 〈흑맥(黑麥)〉, 손소희(孫素熙)의 〈태양의 시(時)〉, 손창섭(孫昌涉)의 〈사제한(師弟恨)〉등은 힘의 세계를 취급했는데, 기존 질서에 대항하여 힘의 윤리를 내세우고 있다.

- ③ 창부의 소설이 나오고 있다. 양공주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룬 오영수의 <안나의 유서(遺書)>와 사창굴의 여인을 다룬 이문희의 <제목 없는 여인>등은 작가의 휴머니즘의 발로이겠다.
- ④ 해방 전의 연애 소설이 차츰 성소설(性小說)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 ⑤ 실존주의와 함께 프랑스의 앙티로망이 시도되고 있다. 이호철(李浩哲)의 <무너앉는 소리>나 이광숙(李光淑)의 <두 소녀> 등은 그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앙티로망이 소설로서 크게 유행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정태용: '해방문학 20년')

이러한 분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겠으나, 형이상학적인 현대인의 내면적 상황을 주목하는 작품과 사회 비판적인 작품, 전후의 세대가 겪고 있는 하이틴의 세계를 다룬 작품, 고발문학 계열의 작품, 니힐리스틱한 현실관의 소설 등, 이제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대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설에 흐르고 있는 대체적 경향은 전쟁이 빚어 놓은 허무의 심연과 그 심연에 던져진 인간의 참상들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참상은 인간을 생각하고 그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부각시켜 현실에 대응해 나가겠느냐 하는 논리적 체계의 철학서보다도, 그 참상을 통해서 휴머니스트로서 느끼는 비애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다. 그것은 그들의 작품의 주인공 대부분이 매춘부, 실직자, 병자, 고아, 소시민 등 사회로부터 유리되거나 거세당한 무기력하고 낙오하고 힘없는 사람들인 것의 원인이 된다.

이 현실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원천적 힘—도덕률, 가치 의식, 윤리관, 인간 의식, 인간 상호간의 신뢰 등—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상실한 힘을 어떻게 찾아야 한다는 뚜렷한 지표도 없었다.

그 당시에 작품들은 대부분 인간의 본질에 대한 회의나 일상적 상황보다도 전쟁이 빚어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나 전쟁의 상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전시대의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참인간의 실상(實像)을 현실의 차원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이다. 일제시대의 소설이 지닌 허구적(虛構的) 현실 감각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폐허의 벽돌담에 기대선 채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그들의 현실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면 현실을 수용하는 작가 정신의 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변혁의 바닥에는 5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축(軸)으로 20세기의 새로운 문화권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되었다는 보다 보편적인 문학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전후 시대의 개막이 가져온 생명의 실상에 대한 추적이 단순한 한국적 특이성이라는 수직적인 면만 아니라 수평적인 면에서 20세기의 세계정신의 유동과 일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실존주의, 앙티로망, 잃어버린 세대 등 서구 문화의 유행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전개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수용(受容)이나 계승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담겨진 찌그러진 강통으로 만든 집 속에서의 고독한 자기 성찰과 극기의 자세를 50년대 작가들이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작품에서의 상징

이범선은 ‘잔잔한 목소리’로 열심히 그의 문학 수업을 엮어 왔다. 이범선이 즐겨 그려 온 비극적인 삶의 절망·좌절·통곡·비에·발악이 중하게 집약되어 있는데 작가는 인간에 대한 사회의 압력, 학대의 양과 질이 어느 만큼인가 하는 것을 아주 하드보일드하게 추궁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고발 문학의 자기류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오발탄>에서처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주제 의식, 상황 속에서 피 흘리는 장본인들에 대한 동정 없는 응시, 그리고 그러한 조건 속에서 벌어지는 행동반경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범선의 소설이 지닌 허무주의적 색채와 고발 문학적 성격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범선은 <현대한국문학전집>의 창작 노트에서, 어느 날 일과를 끝내고 대야에 손을 씻으려고 담갔을 때 손에 묻은 잉크가 번져 나가는 것이 그의 혈관 속에 든 피가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착각을 가졌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실상 그러한 장면이 <오발탄>에 등장한다.

‘피’의 의미는 이 범선 소설의 열쇠가 된다. 그의 ‘피’는 고향을 두고 온 설움의 향수인 도시에 양심의 원천이 되는 극히 감상적인 의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의 격렬한 향년이 섞인 고발적 속성도 소시민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리리시즘의 가락으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눈물로 적셔 들게 되는 것이다.

그의 초기작인 <학 마을 사람들>도 이러한 불행의 수레바퀴를 ‘피’로써 씻어 내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불행을 피의 외연(外延)으로 보고 뜨거운 인간의 본질을 피의 내포(內包)로 보는 것이다. 그는 이 내포와 외연의 ‘피’의 승화를 통해서 역사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무력한 소시민의 현장에 초점을 두고 선량한 인간만을 설정해 온 것이다.

이범선은 고발의 항변을 소리높이 외치는 소설가는 분명 아니다. 오히려 산길 속에 묻혀서 우는 꾀꼬리처럼 자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선량한 인간에 대한 연모의 정이 넘치는 작가이다. 그가 즐겨 다루는 대상, 즉 소시민군(小市民群), 해자, 문화주택, 사망 보류 등은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한 변신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변신은 약삭빠르고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하고 영악한 그런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누덕누덕 불행으로 먹칠된 불쌍한 얼굴이다. 그의 인간군은 따뜻한 선의의 미소와 인간 가족의 차다운 혈연이 뭉쳐져 있다.

단지 그들은 이 현실을 헤쳐 나가는 투쟁적이고 과감한 생존을 위한 계락을 지니지 못하고 회상하는 동결의 상태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에게 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의 작중 인물의 인간관계가 보여 주는 아름다운 양심과 선량한 인정의 가장 정감스러운 혈연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이 고발 문학의 참다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현실을 보는 냉정한 자세에서 우러나온 표상 형식(表象 形式)일 뿐이다. 한국 소설이 향수와 비애의 애잔한 멋을 내면에 깔고 험한 세상을 맑고 투명하게 그려나가는 그의 수법은 한국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박동규(朴東奎) : <한국현대문학전집>(삼성출판사,1984) -

▶ ‘오발탄’의 공간적 배경 : 해방촌



해방촌의 옛 모습

해방촌의 형성과정

해방촌의 정식 행정명은 서울시 용산구 용산 2가동이다. 왼쪽으로는 후암동과 용산중고등학교가 오른쪽으로는 이태원이 있고, 위쪽에는 남산이 아래쪽으로는 미8군부대가 있어서 넓힐 수도 최고고도지구(12m)로 묶여 있어 높일 수도 없는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한때 이곳도 해방동이라는 행정명을 쓴 적이 있다. 1950년대에 해방동이라는 어엿한 동명을 갖고 있었으나 1950년 후반에 용산동으로 개칭되고 1977년에 용산2가동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방촌은 해방, 전쟁 이후 남산과 미군기지 사이 산비탈에 귀환동포, 월남민, 피란민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해방을 기점으로 만들어져 ‘해방촌’이란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해방촌이 형성되기 전 이곳은 남산 기슭의 나무로 둘러싸인 구릉지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 이곳에 일본인을 위한 중학교(1918년)와 신사(현재의 모자원 자리)가 생겼다. 사격장(현재의 남산대림아파트와 이태원주공 아파트 자리), 육군관사, 위수병원 등 인근에 일본군기지(현재의 미군기지)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일본인 마을이 위치하였다. 이 시기 용산 일대가 개발되면서 후암동과 이태원동은 일본인들에 의해 시가지로 변했지만, 군 기지와 남산 사이의 산비탈이었던 해방촌 자리에는 중학교와 신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해방촌은 광복을 기점으로 급격한 공간 변화를 맞게 되었다. 첫째, 월남인들은 해방 직후 비어있던 일본 육군관사를 임시 거처로 삼았다. 그러나 미군정의 퇴거명령에 따라 1946년 해방촌으로 옮겨왔다. 주로 해방촌 구릉지 정상 부분, 즉 현재의 보성여고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둘째, 베다니 전도교회(현재 중구 저동2가 '영락교회') 맞은편에 천막을 치고 살다가 1947년 해방촌으로 이주한 평안북도 선천 출신 월남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임시천막을 세워 하나의 천막에 5~6가구가 함께 거주하였다. 이후 한 가구당 5~6평씩 나눠 판잣집을 지었다. 이들은 '선천군민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지연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해방촌'의 종교, 교육, 직업의 시작과 변화

• 종교

이들이 세운 교회(해방교회)와 성당(해방촌 성당)은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종교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들의 교육과 복지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오랫동안 해방촌의 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하였다. 평안북도 선천은 일제강점기부터 개신교가 뿌리내린 지역이었고, 해방 이후 공산군의 종교탄압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하였다. 해방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반공의식이 투철했다(경향신문, 1981.09.12.; 매일경제, 1983.06.25.). 선천군민회 기독교인들은 1947년 해방예배당을 세웠고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정을 위해 1953년 해방모자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1955년 해방촌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해방촌성당이 건립되었다.

• 교육

대부분의 해방촌 주민들은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개교 초기에는 해방촌 주민들보다 외부지역 학생들이 더 많았다. 해방촌에 학교를 재개교한 이유는 '해방촌'이라는 공간의 상징성 때문이었을 것이며 또한 해방촌 주민보다는 외부 월남 기독교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강점기 일본인학교였던 용산중학교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1946년 용산고등학교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송실중고등학교는 1954년 지금의 센테니얼 크리스천 외국인학교(CCS) 자리에, 보성여자중고등학교는 1955년 현재 위치에 개교하였다. 두 학교는 선교사에 의해 각각 평양, 평북 선천에 개교했다가 전쟁 이후 이곳에 재개교한 것이었다(서선영, 2009).

• 직업

50년대에는 당시 주민들의 일거리는 주로 사제연초(개인이 사사로이 만든 담배 제조업), 주민 80% 이상이 종사하였으며 해방촌이 '제2의 전매청'이라 불릴 정도였다(이신철, 2000). 이 외에 군복 물들이기, 봉투 붙이기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미군부대 등에서 단순 노무자로 일하기도 했다.

• 60-70년대 산업화로 인한 해방촌 인구 증가

집값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 일자리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해방촌으로 모여들었다.



남산이 보이는 해방오거리
올라가는 길

▶ ‘오발탄’ 해설



1958년 오리출판사 발행 초판본, 신흥출판사

이범선이 <오발탄>의 무대인 해방촌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해방촌이 이북에서 남하한 실향민들이 이룩한 동네라는 점에서 그의 친지가 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자신 취재를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어떤 확증도 얻을 수 없다. 해방촌은 행정구역상 용산구 용산 가동에 위치한다.

원래 그곳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사격장으로 떡갈나무, 밤나무, 아카시아, 소나무 등이 울창하던 야산이었다. 해방 후 영락교회가 월남 난민구호사업으로 당국과 협의하여 5백여 명을 임시 이주시키므로써 해방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625동란이 휩쓸고 지나면서 해방촌은 커다란 판자촌으로 변했고 민족 수난의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비극적인 요소를 흠뻑 지니고 있었다. 지금은 판자집이 사라지고 대신 빌딩들도

듬성듬성 들어섰으나 당시의 집의 규모를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집들이 골목골목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단순히 사회의 비참하고 불행한 면을 고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양심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올바른 행방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모색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천이두: ‘오발탄의 행방’-현대한국문학전집)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흘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주어 오르기에 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 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곶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 데나 마구 버린 쓰레기,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한데 더뭉어 모양 같았다.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얹어 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만치 영성한 문이면서 찌꺼끼끼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계리사 사무실 서기 송철호(宋哲浩)는 여섯시가 넘도록 사무실 한구석 자기 자리에 멍청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미진한 사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중략) 딴 친구들은 눈으로 시계바늘을 밀어 올리다시피 다섯시를 기다려 후딱 나가 버렸다. 그런데 점심도 못 먹은 철호는 허기가 나서만이 아니라 갈 데도 없었다.

단편 <오발탄>의 첫머리이다. 보리차물로 점심을 때우는 해군 작업복 차림의 송철호가 갈 곳이라고는 25환 전차값도 없어 심리길을 걸어가야 하는 해방촌의 그의 집뿐이다. 그러나 가 보았자 그곳에는 불행한 현실밖에 기다리는 것이라곤 없다. 전에는 음악공부를 했던 미인이었다는 것을 잊고 만삭이 된 몸으로 양말을 기고 있는 아내, 영양실조의 가냘프 기만 한 어린 딸, 양공주가 된 누이동생, 38선 너머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미쳐버 린 나머지 ‘가자, 가자’만을 되뇌이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고 입대했다가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와 2년이 지나도록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우 영호가 매달려 있을 뿐이다.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아니고, 짹짹하고 간사한 게 어떤 탄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 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꼭 숨 누더기에 싸놓은 미라였다. 흰 머리카락은 한 오리도 제대로 놓인 것이 없었다. 그대로 수세미였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짹짹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철호는 뒷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 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정말 영영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지리 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무슨 하늘이 알 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리 그네가 세상을 모른다고는 해도 산등성이를 약삭스레 깎아 내고 거기애다 게딱지 같은 판잣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解放村)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게 지내 오던 그 날, 6·25 동란으로 바로 발밑에 뻗히 내려다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어머니의 모습)

킁킁한 구석에 앉아 있던 철호의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담요바지 무릎을 한쪽은 꺼명, 또 한쪽은 회색으로 기웠다. 만삭이 되어서 꼭 바가지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배를 안은 아내는 몽유병자처럼 철호의 앞을 지나 나갔다.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분명 병어리는 아닌데 아내는 말이 없었다. (아내의 모습)

매일 해방촌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답답함을 가지고 사는 가장 철호. 상이군인으로 제대한지 어언 2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군대동기들을 만나고 시시덕거리며 양담배를 피며 꺾렁꺾렁한 동생 영호의 모습이 형으로써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 우리도 한번 살아 봅시다. 제길, 남 다 사는데 우리라구 밤낮 이렇게만 살겠수, 근사한 양육도 한 채 사구, 장기판만한 문패에다 형님의 이름 석 자를, 제길 장님도 보게 써서 대못으로 팡팡 때려 박구 한번 살아 봅시다.”

군대에서 나온 지 이 년이 넘도록 아직 직업도 못 잡은 영호가 언제나 술만 취하면 하는 수작이었다.

“그리구 이천만 환짜리 세단차도 한 대 삼시다. 거기다 똥통이나 신고 다니게. 모든 새끼들이 아니꼬워서 일이야 있건 없건 종일 뽕뽕 울리면서 동리를 들락날락해야지. 제길, 하하하.”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은 영호는 벌겋게 열에 뜬 얼굴을 하고 담배 연기를 푸 내뿜었다.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죽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네. 가지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 뽕뽕 같은 것이죠. 입으나 마나 불알이 털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봉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털 굵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짝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와서 썩은 흠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썩썩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흥.” 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양심을 무엇보다 먼저 여기는 철호와 양심이나 윤리는 공갈이라고 말하는 영호. 둘 사이의 대화는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이면서 동시에 작가 이범선이 추구하는 ‘오발탄’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철호와 영호형제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삶이란 무엇 일까. 해방촌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독자는 이들 형제의 대화에서 자신의 삶을 한 번 반추해 볼 수 있다.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그렇지요, 깨끗이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하여 치르는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여처구니없이 크고 많은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쭉시는 총치 하나 처치 못 하시고 이가 쭉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 버리거나 해야 할 거 아니야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낮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 단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요. (중략)

세상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과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만치의 돈을 버는 사람과, 돈 하나는 이걸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그 대신 생활을 조리는 사람들.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끝의 층에 속하겠지요. 필요한 돈도 미처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깨끗하기는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저 그것뿐이지요. (중략)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어디. 싫어도 살아야 하니까 문제지요. 사실이지 자살을 할 만치 소중한 인생도 아니고요.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구요. 필요한 돈이니까 구해야죠.

“천만에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껏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다. 거기에 비해서 그 시시한 것들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 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역지란 말이다.”

“글쎄요. 마음이 비틀렸다고요. 그건 아마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미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지요. 한강 철교를 폭파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명숙이가 양공주가 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지요. 한도령(還都令)이 내리기 전에 하다 못해 동대문 시장에 자리라도 한 자리 비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구 이놈의 배때기에 지금도 무슨 내장이거나 한 것처럼 박혀 있는 파편이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전에, 제가 뭐 무슨 애국자나처럼 남들은 다 기피하는 군대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자원하던 그 전에 말입니다.”

“.....”

“...그보다도 더 전에 썩 전에 비틀렸어야 했을지 모르죠. 나면서부터 비틀렸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영호는 푹 고개를 떨구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야기가 진전됨에 따라 철호더러 ‘양심이라는 가시’를 빼어버리고 남들처럼 적당히 부정직한 짓을 하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동생 영호가 권총 강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다. 아우와 면회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만삭이던 아내는 병원에 실려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철호는 죽은 아내를 병원에 놓아둔 채 거리로 나오나, 주머니에는 병원비로 쓰라고 양공주인 여동생이 쥐어준 돈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이동생이 아니라 남동생 영호의 건이라고 했다. 며칠 전 밤에 취해서 지껄이던 영호의 말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불안했다. 그런들 설마 하고 마음을 다시 먹으며 철호는 경찰서 문을 들어섰다.

권총 강도.

형사에게서 동생 영호의 사건 내용을 들은 철호는 앞에 앉은 형사의 얼굴을 바보모양 멍청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점점 핏기가 가서 가는 철호의 얼굴은 표정을 잃은 채 굳어 가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온 철호는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철호는 술 취한 사람모양 허청거리는 다리로 자기 집이 있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철호는 골목길 어귀에 들어섰다.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 철호는 영호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 아내의 위급한 소식을 동생 명숙을 통해 듣게 된다.

“어서 병원에 가 보세요.”

명숙은 여전히 고리짝을 들추며 돌아앉은 채 말했다.

“병원엘?”

“그래요.”

“병원에라니?”

“언니가 위독해요. 어린애가 걸렸어요.”

“뭘가?”

철호는 눈 앞이 아찔했다.

점심 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영 해산을 못하고 애를 썬단다. 그런데 죽을 악을 쓰다 보니까 어린애의 머리가 아니라 팔부터 나왔다고 한다. 그래 병원으로 실어 갔는데, 철호네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나가고 없더라는 것이었다.

“지금쯤은 아마 얘기를 낳았거나, 그렇지 않으면...”(중략)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철호는 간호원보다도 더 심상한 표정이었다. 병원의 긴 복도를 휘청휘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무엇인가 큰일이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니 또 어찌 생각하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저 이제는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어졌다는 생각만으로 철호는 거기 병원 현관에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양심이나 윤리보다는 돈이 중요하다며 형의 삶을 비판했던 동생 영호의 유치장을 나와 괴로워하다, 만삭인 아내가 죽어감에도 담담한 감정을 느끼는 철호는 그동안 미뤄왔던 사랑니를 뽑기 위해 치과에 들른다. 늘 쳐다보기만 했지 감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그 곳 치과. 위독한 아내를 위해 매춘을 해서 벌어들이 명숙의 돈을 들고 치과에 들어가게 된 철호의 모습은 마치 방향을 잃고 “가자, 가자”며 헤매는 그의 어머니와 닮아 있다.

“됐습니다. 한 삼십 분 후에 숨을 빼 버리슈. 피가 좀 나올 겁니다.”

“이쪽을 마저 빼 주십시오.”

철호는 옆의 타구에 짐을 뺀고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 보았다.

“어금니를 한 번에 두 개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일 또 빼지요.”

“다 빼 주십시오. 한 뒹에 몽팡 다 빼 주십시오.”

“안 됩니다. 치료를 해 가면서 한 대씩 빼야지요.”

“치료요?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마약 쏘시는 걸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수 없었다. 철호는 치과를 나왔다. 또 걸었다. 잇몸이 멍하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하면 시원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볼을 쓸어 보았다.

그렇게 얼마를 걸던 철호는 거기에 또 치과 간판을 발견하였다. 역시 이층이었다.

“안 될 텐데요.”

거기 의사도 꺼렸다. 철호는 괜찮다고 우겼다. 한 쪽 어금니를 마저 빼었다. 이번에는

두 볼에다 다 밤알만큼씩한 숨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 안이 찹찹했다. 간간이 길가에 나서서 피를 뱉었다. 그 때마다 시뻘건 선지 피가 간 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왔다.

그는 그것으로 앓던 이를 한꺼번에 두 개씩이나 빼고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택시를 탔지만 갈 길을 몰라 헤맨다. 그는 택시 조수더러 ‘해방촌으로 가자’ 하고 ‘아니야, S병원으로 가’ 하다가 다시 ‘아니야, X경찰서로 가’라고 횡설수설한다. 그는 갈 곳이 너무 많은 것도 같고 전혀 없는 것도 같다. 나중에는 눈을 감은 채 ‘가’, ‘글썸 가’만을 중얼거리는 그에게 운전사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라고 말하는 것이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지요?”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다. 운전수는 다시 뺨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았던 조수 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때에 또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 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며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썸, 가.”

“하, 참 딱한 아저씨네.”

“.....”

취했나?” 운전수가 조수 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이범선의 <오발탄>은 분명 다시 문학계를 진동시킨 문제작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극적이고 감동적인 그의 독특한 설법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 참다운 시련, 그것을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오발탄>은 그러한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제시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중되는 생활의 압력에 의한 자포자기적 상태의 소시민 누구나가 겪고 있던 사회 부정에 대한 반감을 가장 직설적인 방법에 의해 표상시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오발탄>이 단지 이범선의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한국 소설사에 하나의 큰 파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작품 내부적인 면에서도 소시민의 생활과 양심, 민족적 비극인 6·25, 그리고 인간의 생존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돌돌 뭉쳐져 하나의 작품으로서 완벽성을 지닌 <오발탄>에 대하여 김현은 이렇게 말한다.

이범선의 특색은 대부분의 평자(評者)들이 그의 대표작으로 들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오발탄>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짙은 리리시즘을 밑바닥에 깔 회상적(回想的) 취향, 얼마 되지 않는 봉급에 뿌리혹박테리아처럼 다닥다닥 매달린 식구들을 즐겨 보여 주는 그의 소시민에 대한 완강한 집착, 그러면서도 양심이라는 가시를 끝내 빼 버릴 수 없는, 아마도 틀림없이 기독교적 교육의 잠재인 듯한 도덕을, 이런 모든 그의 특성은 <오발탄>에서 희귀하리만큼 완벽한 예술적 환치를 획득하고 있다. (김현: <사회와 윤리>)

▶ 오발탄 줄거리

6.25 전쟁 직후, 서울 해방촌에 사는 주인공 송철호는 회계 일을 하는 계리사 사무실 서기이다.

음대출신의 아내, 상이군인으로 제대한 동생 영호, 양공주가 된 명숙, 전쟁 중에 정신이 상자가 되어 '가자, 가자'만 외치는 어머니, 어린 딸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열심히 일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처지에 울분을 느끼지만 철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그는 퇴근해서 산비탈의 해방촌을 힘겹게 올라 집의 대문에 들어서면 언제나처럼 어머니의 '가자, 가자' 소리를 듣게 된다.

철호는 38선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머니는 소용이 없다. 동생 영호가 집에 들어오자 일확천금을 꿈꾸는 동생을 나무란다. 영호는 형의 답답한 인생처럼 살지 않겠다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한다. 철호는 10여 년 전 아내의 아름답던 모습을 연상하다가 이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지려하지 않는 아내를 흘깃 쳐다본다. 영호는 대상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눈물을 흘린다. 골목 밖에서는 명숙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다. 그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아랫방으로 가서 눕는다. 그 옆에서 고향으로 가자는 어머니의 외침은 여전하다. 철호는 동생 영호와 삶의 방법으로 옥신각신 하지만 결국 자신도 돈의 중요성과 절박한 현시리를 외면하지 못한 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던 중 동생 영호가 강도짓을 하다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뒤이어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철호는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무작정 치과에 들러 그동안 공공 앓아왔던 사랑니를 발치한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지 같은 피를 뚝뚝 흘리며 양쪽의 사랑니를 다 뽑고 택시를 타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댈 수 없다. 택시 운전사는 오발탄 같은 사람을 태웠다면 불평한다.

▶ 관련자료

이범선을 회상하며

36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로 50년대 중반에 등단한 이범선은 그것을 보전(補填)이라고 하듯 최근 타계할 때까지 줄곧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해 왔다. 그의 작품세계는 다양한 편이지만 그것이 개인적이든 세대적이든 또는 고발적이든 그 밑바탕에는 휴머니티와 서정성이 짙게 깔려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시장이 멀지 않은 주택가 골목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9번지 9호.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가고 없음을 실감할 수 없는 탓일까. 대문에는 ‘이범선’이라는 나무 문패가 그대로 걸려 있다. 자그마한 키의 미망인 홍순보 여사(洪驥輔)여사는 매우 침착하고 자상하게 그의 인품을 전한다.

“요근래 3년 동안 부드러워지기는 했지만, 대꼬치 같은 분이었죠. 매사가 분명하여 타협할 줄 모르셨고요. 아이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시간을 지켜라, 남에게서 돈을 꿩 쓰지 말아라.”

마루에 걸린 커다란 사진이 없는 주인을 대신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2층 그의 서재도 책 하나 그림 한 장이 모두 그대로이다. 이범선은 바로 붉은 윗집에서 7년, 아랫집이 되는 이 집에서 20년을 살아온 동네가 생길 때부터 따져 보아도 답십리 토박이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문인들이 그렇듯이 그 또한 풍족한 재산과 아름다운 고향을 두고 38선을 넘어왔던 한스러운 망향인이었다. 평남 안주군 신안면(新安面) 운학리(雲鶴里) 19번지가 그의 고향집이다.

그는 그곳에서 1920년 12월 30일 부친 전주이씨 계해(葵夏)와 모친 유심건(劉心健) 사이의 5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여동생 여동생 이경선(李慶善)에 따르면 아버지는 신안주의 대지주였으며 어머니 유씨도 안주 갑부의 딸이었다고 한다. 운학리는 청천강가에 자리잡고 있어서 이름 그대로 학이 구름처럼 하얗게 날아오는 것이 멀리 보이곤 하던

마을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무대를 강원도로 잡기는 했으나 〈학마을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쓰고 그 자신의 아호를 학촌이라 한 것도 고향마을에 연유하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가 그곳에서 5리가량 떨어져 있던 청강(淸江)보통학교를 나온 것은 33년 그의 나이 14세 때 일이었다. 그 길로 5년제인 진남포공립상공학교로 유학을 갔다. 왜 그가 진남포의 상공학교를 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일인지 그 자신도 청소년 시절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자전적 요소가 강한 〈흰 까마귀의 수기(手記)〉나 〈당원의 미소〉에서도 주인공은 신안주의 대지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기는 하지만 이범선과 주인공이 동등한 인물이라는 그 어떤 유추도 불허한다.

1940년께 그는 고향에 돌아와 있었던 것 같다. 그해 그는 장질부사를 심하게 앓았고 몸이 허약해진 끝에 척추마져 병들어 교박 20개월 동안 병상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병상에 누운 분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병든 조개만이 진주를 품는다〉는, 그러나 앓은 시기가 불분명한 수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저 제발로 걸을 수만 있다면 그밖의 모든 것은 원치 않으리라 하고 진정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중략) 아니, 아니, 척추가 아프지 않게 되어서 재채기만 한번 마음 놓고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좋으랴 하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병고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신안주 금융조합에 근무하면서 43년 10월에 결혼했다. 신부는 평남 중화군(中和郡) 출신으로 송의여학교 중퇴의 홍순보였다. 그들은 친척의 중매로 알게 되어 3개월간 교제 끝에 결혼한 것이다.

그는 결혼하고 한 달 뒤 징용을 피하고자 처남이 간부로 있는 평북 봉천 탄광으로 아내와 함께 가서 경리사무를 맡아 근무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그는 집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고 46년 38선을 넘었다. 서울에서 합류한 것은 이듬해 1월이었다. 가족이 내려오자 이북 청년들이 기거하고 있던 [명동공제회]에서 나와 신설동에 사글세방을 얻어 48년 연희대학교 교무과에 직장을 구해 연대 사택으로 옮기기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내가 46년 7월 금강전구회사에 입사했을 때였다. 그는 나보다 한 달 앞서 회계과에 입사해 있었다. 나는 그때 45년부터 문학동인에 관계하고 있었으나 그는 대화 중에는 문학에 대해 문외한으로 여겨질 만큼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책상머리에 정지용의 시 〈향수〉를 압정으로 꽂아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구경서 회고담)

이범선은 연대 교무과에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6·25동란을 맞았다. 피난할 새도 없이 3개월을 지하에 숨어 살았다. 9·28 수복 때는 뺨과 다리에 파편을 맞아 다리의 흉터는 끝내 없어지지 않았다. 그가 문학에 관심을 두고 습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4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갔다가 우연히 만난 백낙준의 소개로 51년 가을 거제도 장승포의 거제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인 것 같다.

1954년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 무렵 서울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김광식(金光植)은 회현동에 가면 으레 산업은행 건너편의 ‘문예싸롱’에 들렀는데 그해 가을 그곳에서 이범선을 만났다.

“그것은 그가 문단에 나오기 전이었다. 그의 첫인상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음인지 매우 깔끔해 보였다.”

깔끔하다는 것은 성실성과 통한다. 그는 문단에 나온 이후 초기부터 작품에 있어서 다양한 면모를 보였다. 〈학마을 사람들〉 〈갈매기〉와 같은 서정성 짙은 작품들로부터 59년의 일종의 고발문학인 〈오발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정진을 보였다. 〈학마을 사람들〉로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은 그는 〈오발탄〉에서 50년대의 대표적 작가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위치를 다졌다. 〈오발탄〉은 6·25 이후의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해방촌을 무대로 하여 적나라하게 반영한 암울한 분위기의 작품이었다.

그는 외국어대학의 교무직으로부터 출발하여 만년에는 교수직에까지 올랐다. 조항록, 김봉삼, 황금찬, 김광식, 강형용, 김세익, 노정팔, 홍성걸 등과 함께 이범선이 끼어있던 「수요회」(지금은 목요회) 멤버의 한 사람인 장하구는 이범선을 가리켜 ‘자상한 인정과 섬세한 우정, 그리고 투철한 정의감을 지닌 사람’이라 하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친여적인 견해’를 품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수요회의 회원 가운데에서는 고 주태익(朱泰益)과 매우 가까웠으나 [수요회]의 친구라면 술집을 9군데나 찾아 헤맬 정도로 깊은 우정의 일단을 보였다. 그의 취미는 [수요회]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과 이따금 문우들과 어울려 낚시를 가는 것이었다.

‘그가 20년 낚시에 월척을 한 것은 작년이였다. 잡은 고기는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도로 주루룩 쏟아 방생했다’(김국태 회고담)

그가 1982년 1월에 20여 일 남짓 둘째딸이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에 다녀온 것이 2월 12일이었다. 그 보름 뒤인 27일 녹원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던 그는 그 이튿날 뇌일혈로 졸도하여 경희의료원에서 가료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3월 13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참 애석한 죽음이라고 하겠다. 마지막 한번, 그 한번을 더 뿔 수는 정말 없었을 까?”(수필 ‘마지막 한번’) - 김용성(金容誠): <문학사 탐방>(한국일보.1982. 8. 21)

용인공원묘원으로 가는 길



용인공원 묘역 내
이범선의 묘소

『학 마을 사람들』, 『오발탄』 등의 작품을 쓴 소설가 이범선 씨가 13일 상오4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9의8 자택에서 별세했다.

이범선은 1920년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대지주인 아버지 이계하와 어머니 유심건의 5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월남한 지주계층으로서의 실향의식은 그의 작품 전반에 깊은 음영을 드리운다. 1982년 별세할 때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많은 소설을 남겼다. 그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것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집요하게 탐구했으며, 서정적 인간형의 정밀한 묘사,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향수, 소시민의 애환과 윤리의식의 형상화, 날카로운 현실 고발이라는 고유한 개성을 지속적으로 작품화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홍순보 씨(59)와 2남2여가 있다. 발인 15일 상오10시 자택서, 장지 용인공원묘지.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용인공원묘원까지는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45번 국도가 있는 초현삼거리를 향해 약 1.7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초부로 54번 길에서 초하로로 이어지는 길을 만난다. 다시 이 길을 따라 약 1.5km 정도를 더 걸으면 용인공원묘원으로 이어지는 새래로 길을 만나는데, 여기에서 500미터를 더 직진하면 용인공원묘원의 관리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다.

공원묘원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이범선 소설가의 묘소는 관리번호가 가5-886호이다. 선생의 묘소는 도로 옆에 인접해 있고, 입구에는 작은 안내 비석이 있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면 ‘작가 학촌이범선선생지묘’라는 묘비와 함께 화강석으로 봉분을 곁게 두른 선생의 묘소를 만난다. 1982년 한국문인협회와 한국크리스찬문학가협회에서 세운 묘비 뒷면에는 첫 창작집 『학마을 사람들』의 후기 일부를 기록해 놓았다.

- 중앙일보 1982년 3월13일자

▶ 영화 ‘오발탄’(誤發彈, Aimless Bullet, Obaltan, 1961)



유현목 감독의 영화 ‘오발탄’

- 원작 : 이범선
- 감독 : 유현목
- 출연 : 김진규, 최무룡, 문정숙, 노재신, 서애자, 윤일봉
- 각색 : 이종기, 이이령
- 제작 : 대한영화사 / 1961
- 촬영 : 김학성
- 조명 : 김성춘
- 편집 : 김희수
- 음악 : 김성태
- 미술 : 백남준, 이수진

- 1984년 영화진흥공사의 “광복40년 베스트10” 1위 기록
- 1998년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 50년 - 영화, 영화인 50선’ 1위
- 1999년 한국일보 선정 ‘21세기에 남을 한국의 명작(영화)’ 1위
- 1999년 월간 <스크린> 창간 15주년 기념 ‘한국영화 베스트20’ 1위
- 1999년 KBS TV선정 ‘20세기 한국 톱-영화’ 1위
- 1999년 MBC TV선정 ‘20세기를 빛낸 한국영화 및 영화인 조사’ 1위

유현목 감독의 영화 ‘오발탄’ 감상 포인트

〈오발탄〉은 1961년 4월 13일에 개봉됐지만 당시는 그다지 대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 후 1961년 7월 17일 두 번째 상영됐으나 5·16 군사 정권에 의해 상영 중지 처분을 받았다. 〈오발탄〉이 본격적으로 관객의 관심권에 들어선 것은 1963년 3차 개봉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출품되면서 가능했던 재개봉이었다.

제작비 8백만 환에, 제작을 맡은 기술협회장이자 영화조명계의 거장이었던 김성춘 조명감독, 촬영감독 김학성, 유현목 감독이 모여 동인지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다른 스태프들과 김진규, 최무룡, 윤일봉, 문정숙, 김혜정 등의 스타배우들도 최저의 생활비만 받고 무보수로 출연했다. 그러고도 제작비가 부족해 제작에 13개월이 걸렸다고.

〈오발탄〉이 그려낸 ‘해방촌’이란 아무런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1961년 4월 13일 〈오발탄〉은 일차 개봉된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영화의 상영은 금지되고 제작진은 어려움에 처한다. 노모의 대사 가운데 “가자, 가자”라는 어구의 상징적 의미가, 북한을 지향하고 그 당시 사회를 반대하는 행위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유현목 감독과 스태프들이 이 문제로 크게 고초를 당했다. 후에 유현목은 ‘가자’가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발탄」은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출품을 계기로 상영 정지가 해제되고서야 1963년 을지극장에서 재상영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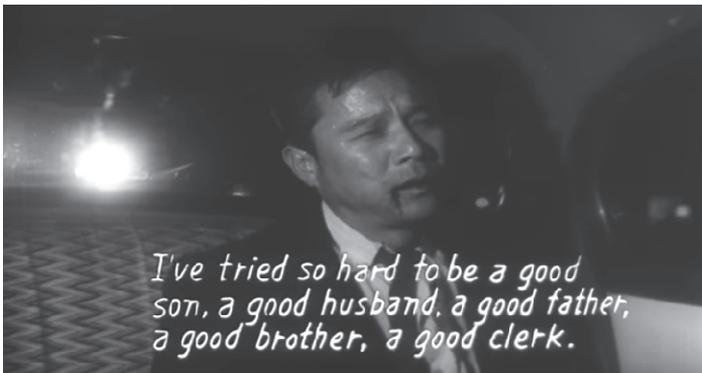
영화 〈오발탄〉은 원작의 중심이었던 철호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세대의 문제아인 영호의 비중을 증가시켰다. 그러면서 영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확대하여 철호 집안사람들의 이야기와 나란하게 진행되도록 배치했다. 또한, 집단 주인공 체제(철호, 영호, 명숙)를 도입함으로써 당시 사회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에 일조했다. 카메라 기법에서도 흑백 영상의 대조로 암울한 사회의 명암을 표현해내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을 포착하겠다는 일념을 보인다. 폐쇄 공간을 이용하고 상징적인 대사를 부각시킨 점도 크게 의미가 부여되는 사항이다. 이 밖에도 비행기의 소음과 노모의 절규가 빚어내는 음향적 효과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해방촌 집으로 들어오는 철호



치통으로 괴로워하는 철호



사랑니를 뽑은 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철호

한 번에 여러 개의 사랑니를 뽑을 수 없다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러 군데의 치과에 들러 사랑니를 모두 뽑아버리는 철호. 멈추지 않는 입안의 피를 머금으며 평소에 타지 않던 택시를 탄다. 자신의 어머니가 평소에 “가자, 가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것을 자신도 절규하듯 하고, 그에게 지금의 세상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암흑일지도 모른다.

그 당시 택시에는 택시차장이 있었던 것일까. 운전자 옆 조수석에는 목적지를 대신 물어보는 차장이 있었고, 목적지를 해방촌이랬다, 서울대 병원이랬다, 중부경찰서랬다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고, 무조건 가져고만 외치는 철호에게 오발탄 같은 사람이 걸렸다고 투덜대며 철호의 “가자, 가자”하는 절규로 막을 내린다.

이 영화는 5.16 쿠데타 이전에 개봉이 되었다. 하지만,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영화는 철저하게 파괴된 하층계급의 삶,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어두운 민낯, 즉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 리얼리즘 작품으로 상영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 남아있는 작품은 원본이 아니며 제 7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출품작의 필름본이다. 대부분의 영화의 끝맺음과는 달리 이 영화는 새드앤딩을 보여준다. 오히려 60년대 한국사회의 적나라함을 보여줌으로써 삶에 희망을 갖게 하려는 의도일까. 철호, 영호, 명숙의 삶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비틀지 않는 삶, 그렇지 않은 삶을 그 시대에 살았으면 하는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기타코스

경리단길



경리단길 골목



국군재정관리단

경리단길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부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바로 옆에 이태원이 위치해있고, 미군부대가 옆에 있기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류와 독특한 개성을 가진 카페, 술집, 맛집 등이 등장하여 한때 입소문이 많이 났고, 젊은 사람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국군재정관리단 정문으로부터 그랜드하얏트 호텔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경리단길’이라 칭한다. 과거 육군중앙경리단이 현 위치에 있었기에 그렇게 불리어왔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국군의 급여와 군물자 수급에 관련한 재정을 집행하는 기관 즉, 국군의 예산을 책임지는 부대이다. 미군부대가 위치에 있어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공간이었던 곳으로 다양한 종류와 개성을 가진 카페,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도시 관광코스 중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요즈음 ‘○○리단길’이라는 이름의 시초가 바로 경리단길 인 것. ‘○리단길’이라는 명칭이 붙은 지역만 약 20여개에 달해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고, 대부분 ‘~리단길’은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카페, 식당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랜차이즈가게에서 느끼기 어려운 감성과 가치는 사람들을 ‘~리단길’로 끄는데 한 몫을 하였다. 다만,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들이 퇴출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리단길’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상업화에 따른 지역 정체성 상실’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지원의 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현재 많은 연구와 정책이 진행 중에 있다. 임대료 값이 치솟고, 기존 주민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성여자고등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

1907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과 국내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평안북도 선천에서 ‘예수교 보성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초창기의 학생 수는 30여 명이었고, 교과목은 산술·성경·한문·작문·역사·지리·과학·심리학·동물학·식물학·윤리·성서지리 등이었다. 1910년에 제1회 졸업생 8명을 배출하였고, 1915년 일제가 「개정사립학교규칙」에 의하여 성경 시간과 기독교 종교의식을 금지시킴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로의 승격을 거부하고 각종학교로 남게 되었다. 3·1운동 때에는 선천의 신성학교(信聖學校)와 함께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일제의 무차별 사격으로 수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뒤에도 신사참배 거부 등 각종 항일운동에 앞장서서 활약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보성여학교, 선천여자상업학교 등으로 교명이 여러 번 바뀌었으며, 1950년 4월 서울로 이전하여 보성여자중고등학교로 재개교하였다. 6·25전쟁으로 부산 피난 교사에서 수업을 하다가 서울 수복 후 1953년 9월 서울 영락교회의 부속건물을 교사로 사용하였고, 1955년 4월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해방촌 성당



해방촌성당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피난처에서 서울로 돌아온 사람들과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 월남한 사람들이 정착한 이곳 해방촌에 천주교 신자들이 점점 증가하였다. 이에 천주교 본당 설립이 추진되었고, 1954년 본당 설립이 확정되었다. 본당의 이름은 해방동 본당이었다. 하지만 성당이 아직 건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자의 주택을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였다. 1955년 성당 신축이 시작되어 11월 완공되었다. 중간에 증축이 이뤄졌으나 신자들의 증가와 교세 확장으로 1969년에 새로운 성당이 신축되었다. 그 후 몇 차례 더 증축되었다가 1983년 현재의 성당이 새롭게 신축되었다.

이렇듯 해방촌 성당과 해방교회는 고된 타향살이를 하는 월남민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옆에 있는 해방교회는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월남인들이 세운 교회로 1947년 창립되었다.

해방예배당



해방예배당

해방촌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해방교회는 해방촌의 ‘랜드마크’이자 역사이기도하다. 평안북도 선천은 일제 강점기에 개신교가 뿌리를 내린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신교 지역이다. 이곳에서 내려온 실향민은 지금의 ‘영락교회’로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그 수가 많아지자 해방촌 일대로 근거를 옮기게 된다. 그들은 해방촌 언덕위에 해방교회를 세웠다. 지금의 해방교회는 선천 사람들이 북적이던 당시 해방교회느낌이 사라진지는 오래다. 해방교회는 처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다 49년에 처음 예배당을 건축했다. 현 건물은 1991년 신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오거리



해방오거리

1961년 신흥교회, 1965년 용암초등학교가 건립되었고 1977년 용산2가동사무소가 해방촌 오거리에 세워졌다. 1975년 송실고등학교, 1978년 송실중학교가 은평구 신사동으로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또한 1963년부터 시작된 토지 불하로 주민들은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었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던 좁은 길들이 점차 도로의 형태를 갖추었다. 신흥길, 보성길, 해방촌길, 후암새싹길을 연결하는 해방촌오거리는 해방촌의 중심공간이 되었다. 신흥길과 해방촌길(현재 신흥로)은 각각 후암동과 이태원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해방촌의 주도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흥시장



신흥시장 입구



신흥시장 내부

50년대 당시 주민들의 일거리는 주로 사제연초(개인이 사사로이 만든 담배 제조업), 주민 80% 이상이 종사하였으며 해방촌이 '제2의 전매청'이라 불릴 정도였다(이신철, 2000). 이 외에 군복 물들이기, 봉투 붙이기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미군부대 등에서 단순 노무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 후, 정부의 규제로 사제연초제조를 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스웨터를 제작하는 가내수공업(일명 '요꼬'라 불리는 편물업)으로 생업을 변경하였다. 1960년~1970년대 해방촌은 편물 가내공업을 중심으로 봉제공장과 시장이 크게 번성하였다. 당시 주민들의 70%가 가내수공업에 종사하였고 한때 전국 유통물량의 30%를 생산하기도 했다. 신흥시장은 마을의 중심상업시설 기능을 담당했으며 이때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였다.

108계단



(구)108계단



(신) 108계단- 경사형 승강기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에 있는 긴 계단이다. 해방촌을 상징하는 장소이며 해방촌을 가장 단시간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108계단은 2018년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주택가와 맞닿은 이동편의시설로는 서울시 최초 사례다. 계단 수가 많고, 지대가 높아 노약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된바 있다. 용산구 조사에 의하면 신흥로 108계단의 유동인구는 1일 평균 1082명으로 이중 노약자와 학생의 비율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 소요예산은 28억원이며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지출되었다.

108 계단은 1943년, 일제가 전몰장병 추모를 위해 '경성호국신사'를 지으면서 참배길로 만들어졌다. 경성호국신사란,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공식적인 시설이었다. 일본군뿐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행사, 합사제가 거행되었다. 이는 본격적인 징병제 실시로 전쟁에서 사망할 조선 장정들이 많아질 것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었다.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 남산일대는 조선신궁을 비롯하여 많은 신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신사는 일본이 국교로 내세운 신도의 사당으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보통 신사의 진입로는 긴 계단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밑에서 보면 계단 끝이 하늘과 닿아있을 정도로 가파르고 높은 계단은 신사로 오르는 계단의 특징이기도하다. 1943년에 세워진 경성호국신사

부지는 약 2만여 평으로 추정된다. 경성호국신의 제신은 전사자 영령 7,447주(柱)였다. 영령으로 모셔진다는 것은 국가, 곧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로서 '호국의 신'이라는 상징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했다.

경성호국신사의 영령 가운데는 일본군 전사자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사자도 있었다. 조선인을 징병하여 전쟁에 내보냈기에 조선인인 전사자에 대해 합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합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인도 천황과 일본제국을 위해 피를 흘리면 일본의 신으로 신사에 영원히 모셔진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야스쿠니신사와 호국신사의 합사였다. 호국신사에서 전사자 영령에 대한 합사제와 위령제는 전시체제 아래 조선인 징병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일본이 패망하고 떠난 경성호국신사자리엔 선천군민회가 자리 잡았고, 지금은 빌라촌이 형성되었다. 지금은 이 계단만이 남아있다. 108계단은 한때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하늘계단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2012년 해방촌 예술마을 사업을 통해 벽화 및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장식된 그림이 공간과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준다. 108계단을 하나하나 세면서 올라보면 1칸이 모자라는데, 계단공사 중 한 칸이 사라져 지금은 107계단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108계단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오랜 세월 해방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계단의 수가 108개로 굳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108계단은 종종 드라마의 배경이 될 만큼 유명세가 따르는 곳이다. 현재는 108개..정확하게는 107개의 계단 중심부는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용산 중 · 고등학교

용산중학교는 조선총독부가 4번째로 개설한 중학교이다. 경성부 내에서는 경성중학교 다음으로 개설되었다. 광복 전에 용산중학교는 나라에서 건립하였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300명을 뽑아 1-150등까지는 경성중학교에 보내고 나머지는 용중에 보내어 용중생들은 부끄러워 모자를 감추어 들고 다녔으나 일인교장이 온 후로 용중생이 경성중학생보다 동경제대 합격률이 높아져 으스스대고 다녔다고 한다. 창립 초에 용산중학교는 경성중학교 다음의 2류학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20년 이후 새로운 중학교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

로 지위가 향상되었다. 용산중과 경성중은 학업, 운동경기 등에서 항상 경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두 학교는 매년 정기적으로 야구시합이 열려 연·고전을 방불케하는 열기를 띄었다고 한다. 용산중과 경성중은 학생들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었다. 용산중 학생들은 유도, 검도 등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사관학교와 같은 모습이, 경성중은 고급장교 관리 자제가 많아 교풍이 달랐다. 용산중, 제2고녀는 일인을 위한 학교였으나 극소수 한인도 재학했다.

초기학교의 모습은 목조로 지어진 본관 외에 과학실, 소사실, 직원 사택으로 구성되었고, 1928년에는 강당, 학생 기숙사를 신축, 1931년 11월 화재로 학교가 전소하였는데, 정확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학생이 피우다 버린 담배꽂이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새로 지은 학교가 1933년 완공, 최신공법에 난방시설, 중학교 최초로 수영장이 마련되었다. 이 신식학교는 화재로 인해 얻은 거액의 화재보험과 기부금으로 지어져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고... 1940년대에는 전시체제로 인하여 군부대 옆에 있었기에 시설을 죄다 군대에 빌려주고 용산중 학생들은 경성중학교 공간을 빌려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945년 학교는 해산, 미군이 한때 학교를 접수하기도 하였다. 1946년 다시 개교하면서 남자 4, 여자 1학급 구성하였는데, 여자 1학급은 수도여고가 흡수하여 남자 중학교가 되었고, 1951년 용산중과 용산고는 분리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배치되었다.



용산중학교

참고문헌

- 강진호(2009).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수정증보판, '월남민의 향수와 서정의 세계 : 이범선 연구의 비판적 검토'. 소명출판, 134-152.
- 공윤경(2014),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4권 제2호(2014) 21-37.
- 권유(1985). 이범선(李範宣) 소설론(小說論). 동악어문학(20), 129-166.
- 김시철(2008). (김시철이 만난) 그 때 그 사람들. 2 : 문단인물기, '이범선(李範宣) : 대교행이 같은 강인한 선비정신'. 시문학사, 133-145.
- 김정동(2001). (문학속)우리도시기행, '이범선의 《오발탄(誤發彈)》 : 해방촌에 해방은 없었다'. 옛오늘, 303-311.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2002). 한국전후문학연구, '이범선과 전후 현실비판' 이회문화사. 67-92.
- 박동규(1996). 전후 한국소설의 연구, '50년대 이범선 소설의 인간형에 나타난 선의적 삶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17-246.
- 박선영(2014), 서울 해방촌 경사지 주택 건축의 유형 및 변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서림(2016). 이범선 장편소설 『흰 까마귀의 수기』에 나타난 월남 작가의 자기반영적 글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50), 387-415.
- 장영우(1996). 이상향의 동경과 휴머니즘의 정신(이범선론). 한국문학연구(18), 151-167.
- 정진희(1996). [역사와 교회 35] 해방교회 - 해방촌에서 땅끝까지. 새가정, 76-81.
- 최병근(2009).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에 나타난 시각적 진술에 관한 연구(42), 621-644.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김미선



약력

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졸, 동 대학원 사회학 석사과정 졸업. 책마루 독서교육연구회의 연구원으로 ㈜신한카드 주최 ‘아름인 도서관 북멘토’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초·중·고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독서논술을 지도하고 있다.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도시문화지도사)으로 ‘서울미래유산’, ‘한양도성-낙산구간’, ‘서울어린이대공원’, ‘4.19 민주묘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울의 영화 <귀로>’, ‘서울의 문학 윤극영<반달>’ 등을 해설하였다.

2017년 12월 ‘경기도의회」경기도 시니어 독서동아리 활동과 도시어메니티 형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50플러스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제로서 도시어메니티로서의 독서활동지원에 대한 정책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8년 디지털인문도시: 순성의 복원 <한양도성 도시재생과 거버넌스>, <한양도성 훼손과 복원> 인문학 주제를 강연하였다.

프리뷰(preview) 강의 : 이소영



약력

- 1992년 KBS-TV 만화영화 『햇살나무』 주제가 작사
- 1992년 KBS 만화영화 시나리오 현상공모 당선
- 1997년 월간 『방송과 시청자』 방송위원회 권 (원고 집필)
- 또또 · 봄이의 언론여행(미래글, 1999년, 공저)
- 우리말 지킴이 또바기의 한글신문1(이끌리오, 2004년)
- 우리말 지킴이 또바기의 한글신문2(이끌리오, 2004년)
- 중학생 독서논술(해오름, 2007년)
- 초등학교 독서논술1,2(가림출판사, 2007년, 공저)
- 다중지능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가림출판사, 2008년, 공저)
- 꿈도둑의 비밀(가림출판사, 2009년, 동화)
- 바리온의 빛나는 돌(가림, 2010년, 장편동화)
- 2010년 교보문고 ‘사람과 책’ 도서소개시리즈 코너 원고 집필
- 독서지도백과(교보문고, 2010년) 공저
- 2011년 여성신문 ‘정서지능’ 시리즈 원고 집필

- 아시아 사서 연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교보문고 독서코칭 전문강사
- 중앙도서관 사서 직무연수 및 독서치료 연수 출강
- 서울시 시민독서아카데미 기획, 개발, 강의
- 교육과학부 독서교육 자문위원
- 「대통령 상 타기 고전백일장」 심사위원 역임
- Save the Children Korea 지역아동센터 독서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우리아이 맞춤 독서법(문예춘추사, 2011)
- 교육학(교육심리 전공) 박사
- 2004년-현재 ‘책마루’ 독서교육연구회 회장
- 현재 고려대학교 강의교수
- 현재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독서위원장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흑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에서 선착순 마감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생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기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